

대한임상약리학회지의 발전 방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임영채

=Abstract=

Development Measures of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Young-Chai Lim

Department of Pharma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Gwangju,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JKSCPT) as a peer-reviewed semi-annual journal has published lots of clinical pharmacology articles of various fields since its first issue in May 1993. Particularly, a number of high-quality articles such as randomized controlled prospective clinical trials have been presented in this journal. The JKSCPT currently has been also indexed in Scopus, one of the famous inter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s, and the candidate journal accredi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lthough the JKSCPT has accumulated outstanding achievements as the specialized journal for clinical pharmacology in Korea,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in order to be a more internationally recognized journal. The methods to analyze the status of a journal for the academic society were first suggested in this article. The SWOT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JKSCPT was done for establishing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Making references to these analyzing methods of a journal and SWOT analysis, numerous problems and th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JKSCPT were presented in detail. The future model of the journal for the academic society was also briefly discussed.

Key w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Internationally recognized journal,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교신저자: 임영채

소 속: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5번지 (우 501-746)

전화번호: 062-220-4236, 팩스: 062-232-6974, E-mail: limyc@jnu.ac.kr

접수일자: 2013. 06. 11. 수정일: 2013. 06. 18. 게재확정일: 2013. 06. 21.

서론

특정 학회에서 발행하는 전문 학술지인 학회지의 활동 및 운영 상태는 해당 학회의 전문적인 학술적 활동을 반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¹⁾ 따라서 각 학회지의 질적이고 양적인 측면의 발전은 관련된 분야의 학술적 발전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다. 대한임상약리학회의 공식적인 전문 학술지인 임상약리학회지는 1993년 5월에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로 올 2013년을 맞이하여 벌써 21권 1호의 발간을 앞두고 있다. 임상약리학회지는 임상약리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라는 위상에 걸맞게 임상약리학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발간되고 있으며,^{2,3)} 특히 대조군을 둔 무작위배정 전향적 임상시험(Prospective Controlled Randomized Clinical Trials)과 같은 양질의 연구⁴⁾를 다수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질적인 우수성이 관찰된 바가 있다.⁵⁾ 또한 학술지 평가에 있어서도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⁶⁾와 의학학술지 편집인협회의 KoreaMed Synapse⁷⁾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특히 국제적 색인기구의 하나인 Scopus⁸⁾에도 2007년 이후로 등재되어 있다. 이처럼 임상약리학회지는 그간 임상약리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진해온 결과 우수한 업적을 쌓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임상약리학회지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약리학회지와 같은 학회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고찰하고, 이를 참고하여 임상약리학회지의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고자 하며, 끝으로 미래 학회지의 발전적 모델에 대해서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임상약리학회지가 더욱 성숙한 국제

적인 학술지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약리학회지가 학회 회원들과 임상약리학 관련 분야 사람들로부터 더욱 유용하게 활용되고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일조하고자 한다.

학회지의 발전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

각종 전문 분야의 다양한 학회지는 각각의 학술지마다 고유한 특수성이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각 학술지가 속한 분야에 관계 없이 학술지의 발전 상태나 이들의 질적이고 양적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보편성을 띠고 있는 분석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회지의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별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학회지 활동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도 유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정부주도 또는 민간주도 학술단체에 의한 학술지 분석방법이 잘 알려져 있으며,^{9,10)} 국제적인 학술 자료 검색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 방법^{11,12)}도 가능할 것이다. 이밖에도 분석하는 관점과 추구하는 지향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분석방법이 파생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학회지의 발전 상태나 그 수준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그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는 접근법이 있다. 이는 학회지의 운영 또는 발전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 공통적인 구성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투고한 원고를 심사하고 다루기 위하여 학회지를 이끌어가는 편집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학회가 있으며, 끝으로 발간된 학회지를 읽

고 활용하고 다시 되먹임을 줄 수 있는 독자들로 대별할 수 있다. 학회지 투고자는 학회지에 따라 학회 회원에만 국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학회 회원이 아닌 일반 투고자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물론 학회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학회가 제일 중요하지만, 제아무리 학회지의 편집위원회나 학회가 학회지의 운영과 관련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지라도 훌륭한 원고의 투고자와 함께 발간된 학회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발한 독자층이 없다면 학회지의 진정한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들 요소간에는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에 서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만일에 특정 요소의 중요도에만 치우친 나머지, 다른 요소를 소홀히 다루게 된다면 결국에는 학회지의 지속적인 발전에 지장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임상약리학회지도 특정 요소에 편중되지 않고, 이러한 구성 요소의 제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회지 활동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분석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법은 학회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막연히 다루기 보다는 학회지 운영에 있어서 특정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적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학회지 운영의 시간적 흐름을 살펴보면, 원고의 작성에서 시작하여 원고 투고, 원고 접수, 심사위원의 선정, 원고 심사, 원고 수정, 채택된 원고의 발간, 발간 학회지의 전파 및 이의 활용에까지 이를 수 있다. 하나의 생명체처럼 학회지의 활동도 학회지라는 일종의 생명체를 중심으로 원고의 투고라는 Input와 채택된 논문의 발간과 활용이라는 Output가 있다.

마치 생명체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음식물이나 약물을 체내에서 소화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학회지 또한 이 양자의 중간 과정에서 학회지를 운영하는 주체가 원고를 심사하며 원고가 수정되고 보완되어 채택되기도 하지만 그 기준에 미달하여 거부되기도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된다. 만일 원고 작성 및 투고에서부터 논문의 발간, 배부 및 활용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학회지 활동의 전반적인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줄기찬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학회지의 수준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법에는 정부 주도 또는 민간 단체가 주도하는 국내외 학술 관련 단체에서 시행하는 방법⁹⁻¹²⁾이 있다. 특히 정부 주도 기관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학술지의 수준을 평가하여 학술지의 출판 비용 지원 등에 활용하기도 한다.¹³⁾ 실제로 국내외 여러 학술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술지 평가 기준은 국내 학술지의 수준 향상과 국제화의 유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¹⁴⁾ 그러나 학술지의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문의 질적 평가 또는 심사 과정의 질적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주로 학술지나 학회지의 체제나 편집 상태를 비롯한 외형적 형태의 평가에 치우쳐 있는 상태이다. 특히 신속하게 다변화해 나가고 있는 학술지나 학회지의 전 세계적인 변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다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평가를 고수하는 단점이 발견되고 있다.

학회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과 훈련 등을 비롯한 지원 프로그램은 비록 원고를 투고하고, 접수된 원고를 심사하고, 이후 채택된 원고를 발간하고 이를 다시 전파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큰 흐름 속에 직접적으로 포함된 것은 없지만,

학회지 활동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고 다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원고의 작성 및 투고, 논문의 심사와 발간 및 활용과 같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의 편집 또는 심사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서 이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의 운영이 해당될 수가 있다. 이밖에도 투고 원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원하기 위한 학회 측의 각종 지원 활동도 포함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보다 우수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는 한글 원고의 영문화 작업을 지원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발간된 학회지의 활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각종 Feedback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과 이러한 과정에서 파악된 점들을 다시 학회지의 운영에 반영하는 활동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학회지를 운영하는 학회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제적인 지원을 담보로 하고 있다. 특히 학술지나 학회지를 평가하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기준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사항들을 이미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임상약리학회지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SWOT 분석

앞서 제시된 여러 분석 방법을 참고하고, 임상약리학회지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에 따른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를 얻고자 SWOT분석¹⁵⁾을 실시하였다. 현 상황에서 임상약리학회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동시에 앞으로의 학회지 발전에 있어서

기회적 요소와 위협적 요소를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Table 1).

임상약리학회지의 문제점과 각각의 발전 방안

SWOT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임상약리학회지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외부적인 환경은 호의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학회지에 위협적인 요소도 적지 않다. 학회 회원들은 임상약리학회지에 대하여 보다 우수하고 유익하면서도 보다 국제화된 학술지로 거듭나길 바라는 요구는 급격히 점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율배반적으로 원고 투고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며,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해결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다음에서는 현재 임상약리학회지가 지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들 각각에 대한 발전 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원고투고의 증진 필요성

임상약리학회지가 창간된 지가 벌써 20여 년 이상이 흘렀으며, 또한 질적 수준이 매우 우수한 논문을 꾸준히 발간해오고 있는데다가, 임상약리학회가 상당수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발간 때마다 임상약리학회지에 투고하는 원고 편수가 통상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다.⁵⁾ 따라서 원고 투고를 증진해야 하는 것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임상약리학회지에 원고를 잘 투고하지 않는 학회 회원들을 타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들이 학회지에 투고를 꺼려하는 이유를 잘 살펴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임상약리학회지가 회원들에게 보다 흥미롭고 유익

Table 1. SWOT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u>SWOT Analysis</u>	<u>Strengths</u>	<u>Weaknesses</u>
	~ high quality of articles ~ long history (over 20 yrs) ~ nationwide scale ~ indexed in SCOPUS & KoreaMed Synapse ~ candidate journal accredited by NRFK	~ small number of article submission ~ problems in article flow process ~ low number of publication ~ confined to domestic authors ~ insufficient English homepage ~ lack of world-renowned editors ~ weak recognition as interesting and useful journal for KSCPT members ~ society's low support for the JKSCPT
<u>Opportunities</u>	<u>Strength-Opportunity Strategy</u>	<u>Weakness-Opportunity Strategy</u>
~ government support increase in academic journals ~ increased status of the JKSCPT (Scopus) ~ increased demand for specialized journal on clinical pharmacology from related readers ~ growing author preference for international journals	<i>(Immediate Execution required)</i> ~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articles ~ awarding prizes (best article, most submission, most citation, etc) ~ internationalizing the JKSCPT ~ increasing citation of the JKSCPT ~ increasing status of the JKSCPT [SCI(E), Pubmed (Central)] ~ promoting the JKSCPT	<i>(Immediate Remedy required)</i> ~ increasing manuscript submission ~ improving article flow process (writing/submission/reviewing/editing/publication/propagation/feedback) ~ increasing publication number ~ activating editorial committee activity ~ English version of the JKSCPT homepage ~ encouraging English manuscript ~ inviting world-renowned editors ~ efforts to make the JKSCPT more interesting and useful for KSCPT members ~ increasing society support for the JKSCPT
<u>Threats</u>	<u>Strength-Threat Strategy</u>	<u>Weakness-Threat Strategy</u>
~ possibility of decline in the status of the JKSCPT ~ establishing too many new journals ~ tightening trend of evaluating journals by authorities ~ falling public trust in journals	<i>(Risk Solution required)</i> ~ maintaining and increasing status of the JKSCPT ~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and quantity level of the JKSCPT ~ efforts to meet the evaluation criteria ~ reinforcing ethical standards	<i>(Long-term Supplementation required)</i> ~ increasing number of KSCPT members ~ education and training of reviewers and manuscript editors ~ merging with related domestic journals ~ strategic partnership with related international journals

NRFK stands for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JKSCPT stands for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하면서도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학술지로서 매력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국내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활동의 결과물을 발표하는데 있어서 2000년 이후로는 국내 학술지보다는 주로 외국에서 발행되는 국제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¹⁶⁾ 이러한 경향은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자의 업적 평가를 실시하거나 연구비지원기관에 연구비를 신청할 때

SCI(E) 등재 논문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를 우대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국내 학술지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¹⁷⁾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학술지가 국제 학술지로 발전하지 못하면 원고 투고의 실질적인 성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이 예상되므로,¹⁸⁾ 임상약리학회지

의 경우에도 국제화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록 임상약리학회지가 Elsevier사에서 운영하는 Scopus라는 국제적인 색인기구에는 2007년 이후 등재되어 있으나, 향후 이의 등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타의 권위 있는 국제적인 색인에도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 상황에서는 임상약리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저널이고 또한 Scopus에 등재되어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임상약리학회지에 원고가 게재되어도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져서 원고 투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국내의 학술관련 정부 기구들은 SCI(E) 일변도를 탈피하기 위하여 Scopus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사항이다.

최근 임상약리학 인정의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임상약리학 전공의는 그 과정 중에 임상약리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의무화함으로써 투고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으나 전공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으며 일정하지도 않아서 많은 기대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원고 투고 후보자인 임상약리학회 회원 수의 증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금후 학회 측의 노력이 요구된다. 학회지의 투고 증진과 학회지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들의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서 학회지에 논문을 실은 사람 중에서 최다 투고상이나 학회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밖에도 학회지 최다 인용상 등과 같은 다양한 장려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상약리학회의 학술대회 심포지움에서의 연제 발표는 통상적으로 초록이나 포스터 수준이 아니고 논문 전문을 발표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심포지움 발표 후에 연자로 하여금 임상약리학회지의 투고기준에 부합하는 원

고 제출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학회지의 원고 투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임상약리학회의 연구자들이 여타의 세미나나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결과물들도 논문 형식을 갖추어서 학회지에 실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 학회지 논문 흐름(작성/투고/심사/발간/전파/활용)의 개선

학회지 논문의 흐름은 원고의 작성으로부터 원고의 투고와 심사 및 이의 수정과 채택된 원고를 발간하고 발간된 이들 논문을 전파하고 다시 이를 활용하는 여러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학회지의 발전에 있어서 논문 흐름의 원활한 운영과 각 단계별 문제점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논문 흐름에 있어서 흔히들 원고가 학회지에 보내진 이후부터 학회지가 발간되는 순간까지의 과정에만 관심과 집중을 갖게 마련이지만, 그 이전과 이후의 단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즉, 원고 흐름의 첫 단계인 원고의 작성과 투고의 과정,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인 전파와 활용의 단계를 지칭한다. 원고의 작성과 투고 과정이 잘 이루어질수록 그 이하 단계도 그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더 나아가 원고 작성과 투고 과정의 개선을 연구자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 잘 유도하고 이끌어줄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논문 작성법이나 연구법 등에 대한 적절한 교육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학회 측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논문 흐름에 있어서 학회지를 어렵사리 발간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단계를 소홀히 대하면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용이라는

소중한 목적을 망각한 셈이 되며, 특히 학회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Feedback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학회지의 보다 진전된 발전을 도모하기가 어려워진다.

최근에는 투고된 원고를 접수하고 이를 심사하고 발간하기까지 온라인 상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며, 여러 학술지 평가기관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임상약리학회지도 이의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논문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편집위원회이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회지의 발간이 주기적인 속성이 있는 만큼, 편집위원회의 모임을 정례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학회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논문 흐름에 있어서 학회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는 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 과정이다. 임상약리학 분야에 대한 우수한 심사위원들을 모집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심사가 상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논문 심사가 주관적 속성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러하더라도 가급적 객관화된 심사기준을 구비하고 그 완성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심사의 공정성과 기밀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¹⁹⁾ 또한 학회지의 기한내 정시 발간을 위해서 심사위원들의 심사 기한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비록 심사위원들의 학문적 연구 경험과 심사 경험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우수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심사위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필요하므로,²⁰⁾ 이에 대한 학회 측의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다. 원고의

편집과 관련하여 전문 원고편집요원을 고용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이다. 최근 연구 부정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가 많이 알려지고 있으며,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한 진실된 연구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학회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연구윤리 및 연구출판윤리 기준에 대한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학회지의 운영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발전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우수한 국내외의 학회지나 학술지의 장점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특히 의학 분야 학술지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학 학술지편집인협의회²¹⁾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학회지의 국제화 방안

임상약리학회지가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학회지의 국제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 홈페이지 전체의 영문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학회지의 원고 투고에 있어서 영문화를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영문학술지로 발전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로 임상약리학회지가 창간된 이래 2012년까지 발간된 전체 논문에서 영어로 표기된 논문의 비율은 5.1 %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⁵⁾ 영문 원고의 투고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원고의 영문교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논문의 영문 표기에 대한 워크샵과 같은 교육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임상약리학회지의 경우 외국 저자의 투고는 극히 저조한 상태로써 이를 더욱 늘려야 한다.⁵⁾ 학회지의 국제화에 있어서 중요한 한 요소인 편집위원의 국제별 구성에 있어서도, 임상약리학회지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외국인 임상

약리학자를 편집인으로 초빙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임상약리학회지의 Citation 또한 국제화에 매우 필수적인 한 요소이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 연계된 회사인 XMLink사가 운영하는 KoreaMed Synapse는 Digital Archive & Reference Linking System으로서 CrossRef²²⁾의 DOI (Digital Objective Identifier)²³⁾와 연계하여 임상약리학회지의 참고문헌에서 바로 다른 학술지로 연결이 가능하고, 또한 다른 학술지가 인용한 논문에서 임상약리학회지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⁷⁾ 이는 학회지의 국제화에 필수적인 시스템으로서 임상약리학회지도 이미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4. 학회지 위상의 향상 및 학회지 홍보

임상약리학 분야는 환자에 대하여 실제적이면서도 보다 우수한 약물치료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우수한 새로운 신약의 개발과 연구 및 이의 적용을 위한 제반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료보건 전문가와 생의학 연구자들을 위하여 임상약리학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임상약리학 분야는 갈수록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학문이 공존하고 있다. 그만큼 임상약리학회지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관련 분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학회지의 위상을 더욱 향상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학회지를 통하여 임상약리학 분야의 활성화를 더욱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현재의 연간 2회의 학회지 발간 횟수 보다는 이를 더욱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Scopus라는 국제적인 색인 기구에 등재되어 있긴 하지만, 보다 권

위가 있는 국제적인 색인에도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회지 위상의 향상 못지 않게 임상약리학회지의 홍보를 위한 노력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5. 유용하고 흥미로운 학회지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성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지만, 임상약리학회지 회원들의 연구 활동에 유용하면서도 흥미로운 학회지로 거듭나고 또한 그렇게 마땅히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회원들로 하여금 학회지가 탐독할 만한 가치가 있도록 느껴져야 할 것이며, 이들의 연구 활동이나 직업적 행위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서 여겨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원저 논문 이외에도 학회지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다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매 호마다 특정 주제를 정하여 논평이나 최신 지견을 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급변하는 임상약리학 관련 제반 분야의 학문의 흐름을 회원들로 하여금 파악하게끔 하는데 일조할 수가 있다. 학회지의 디자인과 포맷을 개선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시각적인 가독성을 증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밖에도 매 호마다 특정 회원란을 마련하여 소식과 인터뷰 내용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회지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학회지의 현황과 미래의 Vision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다. 이를테면 임상약리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에서 학회지 관련 심포지움을 마련하여 학회지의 현황에 대한 소개와 학회지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홍보하고 또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함께 숙고하는 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6. 장기적인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

학회지의 가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원고 투고가 더욱 증진하고 동시에 논문 심사의 질적 수준 향상이 절대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원고 투고자나 심사자 당사자들의 능력과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학회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회지의 발전에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문 심사자나 원고 편집자에 대한 정기적인 적절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원고 투고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7. 학회의 지원 증대 필요성

앞서도 제시되었지만 학회지의 발전에 있어서 학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회원들을 위하여 원고 투고자나 논문 심사자 및 원고 편집자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고의 영문화를 위하여 원고의 영문 교정 서비스의 지원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회지의 발간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과 관련하여 발전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타 학회지의 사례²⁴⁾를 참고할 필요성도 있다.

미래 학회지 발전의 새로운 방향

미래 학회지의 발전 방향이라고 하여 지금과

전혀 색다른 어떠한 특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과거나 현재의 학회지 보다는 더욱 학회지의 기본 사명을 완수하고 그 핵심가치를 실현해내는 모습일 것이다. 학회지와 같은 학술적 저널의 핵심적 가치란 연구자들의 학술적 활동, 즉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디자인에 의해 설계되고 이에 부합되게 수행되어진 연구 결과를 정확히 기술하고 합당한 의미를 부여한 다양한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진위와 그 가치를 공정히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채택된 결과물을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이를 유용하게 활용토록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연구결과물의 가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의 학술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실제의 일상적인 우리 삶의 의학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내는 역할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학회지는 이러한 핵심적 가치와 사명을 보다 원활하게, 동시에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미래 학회지의 발전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의 많은 학회지들은 예외 없이 주로 전문 연구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학회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문 연구자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가 있지만, 연구가 이루어지는 실제 원천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²⁵⁾ 전문 연구자의 입장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면, 전문 연구자의 관심과 입장에 부합되는 결과와 이론만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강화하여 실제 임상 현장이나 실제 개개 인간이나 사회 집단에서 역동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을 소홀히 다루게 되어서 임상 현장의 문

제점이나 실제 질병을 다루는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가 있다. 연구자에 의한 연구 업적은 엄청난 속도로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매우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학회지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 연구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의 다양한 직역과 계층으로부터의 Feedback을 잘 청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상세히 분석 파악하고, 다시 이를 학회지의 운영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마땅히 학회지가 선도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한편 학회지의 핵심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같은 맥락에서, 학회지의 논문이나 여타의 학술적 연구결과물을 전문 연구자 이외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회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세심한 노력과 배려가 요구된다. 기존의 학회지 체제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미국임상약리학회지²⁶⁾의 경우에 논문의 내용을 초록보다 더욱 간결한 형태로 표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논문에 대한 몇 개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란을 마련하여 논문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변화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현행의 학회지는 우리가 처한 의학적 실제 환경의 급변하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그 시스템이 다소 경직되어 있으며, Peer Review와 같은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에 따른 장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데에는 매우 유리하지

만, 우리가 처한 여러 난제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보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하기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의 양상은 다변화되고 더욱 복잡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겪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Breakthrough 한 접근법이 요구되지만, 기존의 시스템은 이를 감당하기에 어려울 수가 있다. 따라서 미래의 학회지는 이러한 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용이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학회지의 체제나 운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평가하는 현재의 체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 업적 평가 시스템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학회지의 시스템을 바꾸기란 매우 힘들 수 있겠지만, 여전히 발전적인 변화의 시도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Kim SJ. An effective way to the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Korean medical and life science journals. *J Korean Soc Lib Inf Sci*, 2006;40(2): 457-480. (Korean)
2. Informations for authors. *J Korean Soc Clin Pharmacol Ther*, 2012;20(2):205-208. (Korean)
3. Korean Society for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Web sites on the regulations for the Korean Socoety for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http://www.kscpt.org/Modules/Content.aspx?id=about.regulation> [Online] (last visited on 21 May 2013).
4. Schroeder TV. Evidence-based medicine in rapidly changing technologies. *Scand J Surg*, 2008;97(2):100-104.

5. Lim YC. An analysis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J Korean Soc Clin Pharmacol Ther*, 2012;20(1):34-41. (Korean)
6.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Web sites on the list of the candidate journals accredi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http://www.nrf.re.kr/nrf_tot_cms/show.jsp?show_no=184&check_no=176&c_relation=0&c_relation2=0 [Online] (last visited on 8 May 2013).
7. KoreaMed Synapse. Web sites on a digital archive & reference linking platform of Korean medical journals b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synapse.koreamed.org/index.php> [Online] (last visited on 13 May 2013).
8. Content Coverage Guide of Scopus. Web sites on the content coverage of Scopus. <http://www.info.sciverse.com/UserFiles/ContentCoverageGuide-jan-2013.pdf> [Online] (last visited on 16 May 2013).
9.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Web sites on the management guidance of the (candidate) journals accredi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notice/list.jsp?show_no=177&check_no=176&c_relation=bizmenu&c_relation2=10 [Online] (last visited on 8 May 2013).
10.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Web sites on KAMJE Journal evaluation criteria. <http://kamje.or.kr/intro.php?body=evalcriteria6> [Online] (last visited on 13 May 2013).
11. Web of Knowledge. Web sites on the Thomson Reuters Journal Selection Process. <http://wokinfo.com/essays/journal-selection-process> [Online] (last visited on 11 May 2013).
12. Elsevier B.V. SCOPUSTM. Web sites on Scopus title suggestion. <http://suggestor.step.scopus.com/suggestTitle.cfm> [Online] (last visited on 11 May 2013).
13.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Web sites on the journal publication support program of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http://www.enest.or.kr/user/journal/main.action> [Online] (last visited on 15 May 2013).
14. Suh CO, Oh SJ, Hong ST.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t the forefront of improving the quality and indexing chances of its member journals. *J Korean Med Sci*, 2013;28(5):648-650.
15. Humphrey A. SWOT analysis for management consulting. *SRI Alumni Newsletter*, December 2005.
16. Lim C. Recent trends of the scientific publication patterns of Korean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ons. *Korean J Thoracic Cardivasc Surg*, 2009;42:561-565. (Korean)
17. Lee SE, Ju W, Kim HJ, Kim JW, Park NH, Song YS. An analysis of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 *Korean J Gynecol Oncol Colposc*, 2005;16(1):77-81. (Korean)
18. Huh S. Internationalization of medical journals in Korea. *Korean J Nephrol*, 2011;30:134-140. (Korean)
19. Bornmann L, Mungra P. Improving peer review in scholarly journals. *Eur Sci Ed*, 2011;37(2):41-43.
20. Han DS. Train the reviewers. Proceeding of 2010 KAMJE Workshop, 2010;141-152. (Korean)
21.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Web sites on KAMJE <http://www.kamje.or.kr> [Online] (last visited on 4 May 2013).
22. CrossRef. Web sites on CrossRef of Publishers International Linking Association. <http://www.crossref.org> [Online] (last visited on 16 May 2013).

23. The DOI system. Web sites on DOI of International DOI Foundation. <http://www.doi.org> [Online] (last visited on 16 May 2013).
24. Kim DG. Strategies for upgrading medical scholarly journals: Experience on the management of medical scholarly journals. *Medical Journal Editor's Academy 2011: Road to Index*, 2011;158-161. (Korean)
25. Poschl U. Interactive journal concept for improved scientific publishing and quality assurance. *Learned Publishing*, 2004;17(2):105-113.
26. 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Web sites on the Guide to Authors on Study Highlights. <http://www.nature.com/clpt/clptguidetoauthors.pdf> [Online] (last visited on 2 May 2013).